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Big5성격유형에 따른 양육참여 및 양육스트레스*

Parental Participation and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the Big Five Personality Types of Fathers With Young Children

윤종승¹

JongSeung Yun¹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parental involvement and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the father's personality type.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02 fathers with children aged three to five living in Seoul, and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ir Big Five personality types, parental involvement, and parenting stres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K-means cluster analysis and covariance analysis.

Results: In this study, fathers' personality types we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sincerity, friendship, openness'(21.5%), 'neuroticism'(27.8%), 'sincerity'(29.4%), and 'low sincerity'(21.1%). These are the exact same Fathers in the 'sincere, friendly, open' group showed higher parental involvement and lower parental stress, while fathers in the 'neurotic' group showed lower parenting involvement and higher parenting stress.

Conclusion/Implications: There was a difference in parental involvement and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the father's personality type.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expected that the understanding of the father's personality will be clearer and the foundation for constructing a program related to parenting which considers personality types will be established.

key words young children, Big Five, father, parental participation, parenting stress

* 본 논문은 2022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¹ 제1저자(교신저자)

경희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생
(e-mail : whd556@naver.com)

I. 서론

전통사회에서는 주로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어머니가 맡아왔고, 아버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계적 지원자 같은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경제발전, 취업모의 증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 문화적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 역할 인식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옛 가정 내에

서 나타나지 않았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아버지의 양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양육은 더 이상 어머니만의 과제가 아닌 공동 역할 및 책임으로 부모가 함께 나아가야 할 공동의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들이 양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들이 직면하고 있는 양육의 현실은 낙관적이지 않다. 김경은(2015)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임신을 하면 신체와 심리의 변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어머니로서 양육을 준비하게 되지만, 아버지는 준비없이 부여받은 아버지의 역할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성영실과 김경철(2017)은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 맞벌이 부부의 증가, 사회생활 및 직장으로 인해 주말부부 증가로 인해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많은 아버지들은 직장에서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 가정과 직장의 시간 배분의 어려움(김용익, 김낙홍, 2015)과 직장생활에서의 회식 등의 늦은 귀가(김낙홍, 2011)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로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관심을 가지는 데 한계를 가지므로 어느 때보다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양육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버지들에게 자녀 양육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편,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했고, 그 중 Belsky(1984)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격유형으로 주장했다. McGillicuddy-Delisi(1985)는 양육을 할 때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Jersild(1962)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성격은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자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성격에 따라서 양육방식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백윤희, 정경희, 2017), 성격은 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효율적인 양육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보았다(양완희, 신나리, 2016; Chiel, 2018, Belsky, 1984). 따라서 효율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양완희와 신나리(2016)는 충북지역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4세~5세 유아를 자녀로 둔 35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격유형에 따라 양육행동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성실성, 친화성, 외향성, 개방성에 따라 양육행동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한지현와 이진숙(2015)은 만3~6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격유형이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우호성이 높을수록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였고, 신경증 성향이 높을수록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윤천성과 김미선(2008)의 연구에서는 H연구소의 결혼이 가능한 571명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과 양육태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성취가 유형이 애정적 양육태도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술가 유형은 통제적 양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의 성격은 자녀의 양육에 중요한 변인이 되기 때문에(Belsky & Isabella, 1985, Belsky & Jaffee, 2006), 성격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한지현, 이진숙, 2015).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아버지의 성격유형과 양육 관련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미비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역할

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제공할 수 없는 감각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차이가 있고 이는 어머니가 대신 할 수 없는 영역이다(Lamb & Tamis-LeMonda, 2004, Dudson, 1975). 또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아버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보조 역할이 아닌 함께 공동 양육자로서 자녀의 삶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역할까지 요구되고 있다(Fagan & Palm, 2004; Lamb,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을 비롯한 자녀의 성장에 중요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아버지의 개인적인 특성인 성격유형이 양육 관련 변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고, 주요한 변인으로 설정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성격이란 남들과 다른 개인적인 특성으로, 행동, 감정, 적성, 지성, 습관, 태도 등을 포함하는 심리체계를 의미하는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개념을 의미한다(Allport, 1937). 또한 성격은 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의 총합으로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개인의 독특한 특성으로 여러 해에 걸쳐 형성되는 특징을 갖는다(장휘숙, 2010). 이러한 개인의 성격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포괄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고 개인적, 조직적 성과와의 관계를 가장 안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Big5 모델이 있다.

Big5 모형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인 성격의 유형을 신경증(N), 외향성(E), 개방성(O), 우호성(A), 성실성(C)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 인간의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유용한 도구이다(Goldberg, 1992). Big5 도구를 나타내는 성격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경증’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부정적 정서, 불안감, 죄책감, 분노, 공포와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의미하고, ‘외향성’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 사교적이고, 주장적이며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활기가 넘치며 열정적이다. 또한 ‘개방성’은 창의적인 생각과 모험심이 많으며 틀에 박힌 고정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우호성’은 상대방에게 대한 존중, 관심, 신뢰 및 예의가 바르며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원만한 관계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성실성은 목적인 바를 이루기 위한 개인의 성실 정도를 뜻하며 미래지향적인 행동 습관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규칙, 규율, 원칙들을 따르려 하는 특성이 있다(이원석, 2011). 그러나 Big5 모델은 서구 문화권에 한정되어 있어 한국의 문화에는 적용되기가 어렵다는 한계(심선영 등, 2010)가 있지만 다른 성격 유형검사에 비해서 높은 신뢰도와 검증된 이론(심예은 등, 2021)과 개인의 성격특성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며, 개개인의 행동 예측이 가능하다는 강점(McAdams, 1992)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인적이고 조직적이며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Big5 모형으로 구성된 도구를 이용하여 아버지의 성격과 양육 관련 변인 간의 차이를 연구하고자 한다.

아버지의 성격유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윤서연(2016)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기반하여 아버지의 양육행동 척도를 개발하였다. 김귀옥과 김영희(2015)은 유아교육기관에 소속된 아버지 600명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방성 성격특의 아버지는 유아의 부정적 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선옥과 이영환(2006)의 연구에 따르면 전주시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 5세에서 6세의 유아 196명과 이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의 창의적 성격특성과 양육신념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니, 부모의 창의적 성격특성과 유아의 창의성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아버지의 성격유형은 자녀의 발달 변인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상기의 연구들은 대부분 성격유형이 자녀의 발달에만 치중된 연구들이고, 아버지의 성격유형에 따른 양육관련 변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버지의 성격유형이 양육 관련 변인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를 양육 관련 변인으로 설정하고, 아버지의 성격유형에 따라 Big5의 5가지 지표를 이용해 군집화하여 군집유형에 따라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에 각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양육참여는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정도를 의미한다(Lamb et al., 1987).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인식이 재조명된 이후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자녀의 전인적 발달(윤서연, 2016; Gilbert et al., 1982), 또래 유능성(Kennedy et al., 2015), 자아존중감(제희선, 이강훈, 2018), 놀이성(이배, 김경숙, 2013), 사회정서발달(김은희, 정희정, 2019), 자기조절력(백진희, 신혜원, 2019)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Ryan 등(2006)도 부모 모두에게 지지받으며 성장하는 유아는 한 부모 가정에서 지지받는 환경의 유아보다 인지, 언어 발달이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어머니와의 부부관계(손영빈, 윤기영, 2011), 부부 갈등(조해연, 유준호, 2021), 어머니의 역할 부담감(도경민, 이회영, 201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장효은, 김춘경, 2018)를 개선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은 배우자와의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를 완화 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은 자녀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배우자와의 관계 또한 개선된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관심은 중요한 의미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Freud(1933)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녀의 성격과 행동발달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격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Belsky와 Isabella(1985)도 부모의 양육방식과 행동은 자신의 성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부모의 성격유형을 중요한 변인이라고 역설하였다. 성격유형과 양육참여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친화성이 높은 아버지일수록 양육활동에 적극적(Levy-Shiff & Israelashvili, 1988)이며, 창의적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자녀에게 따뜻한 양육태도를 보였다(장성희, 2010). 또한 개방성의 성격을 가진 어머니는 양육참여에 더욱더 적극적이라는 연구결과(양완희, 신나리, 2016)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개방성, 신경증, 성실성의 성격유형은 양육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한지현, 이진숙, 2015). 따라서 인간의 행동은 고유한 기질과 성격의 유형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성격유형은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아버지들이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고 대두됨으로서 새로운 심리적 문제인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또한 양육 관련 변인 중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의미한다(Abidin, 1992).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

인으로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김미숙, 김바다, 2016).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성격이 증대되어(Belsky et al., 1991), 온정적이고 격려적인 양육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인숙, 전정희, 2016). 이러한 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양육과 연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Lazarus과 Folkman(1984)의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개인의 성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였다. 성격과 양육스트레스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방성 성격유형을 가진 아버지는 일상생활에서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대처능력과 관련성이 높고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Nielsen & Kristensen, 2008)를 갖는다. Langofrd과 Glendon(2002)은 신경증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성실성과 우호성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 규칙과 규범에 따른 통제적인 행동을 덜 하고, 양육효능감이 높아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진다(최윤희, 김영희, 2019). 권다영과 강승희(2021)는 두려움, 불안, 우울 부정적인 성격의 어머니일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 하였다. 상기의 연구들은 양육스트레스가 성격유형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버지의 성격유형 또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주 양육자의 성격유형은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다수이고, 변인들 간의 독립적인 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변수중심 방법을 이용한 연구(양완희, 신나리, 2016; 한지현, 이진숙, 2015; 박영애, 최영희 2002; 최윤희, 김영희, 2019)이기 때문에 성격을 유형화하여 고려하기에는 연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성격은 차원별로 특성이 있어 다각적 특성이 반영된 접근을 위해서는 분산된 성격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김민정 등, 2018). 따라서 각각의 하위요인의 결합 특성에 따라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 수월하며 군집분석 방법에 알맞은 사람 중심 분석방법을 사용하려 한다. 즉, 인간의 성격은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위요인을 개별적인 변수로 투입하는 변수 중심 접근보다는 여러 하위 유형이 서로 어떻게 어울려 있는가를 살펴보는 사람중심 분석방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격 관련 변인을 사람 중심 분석방법으로 유형화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가연과 김호정(2021)은 어머니 233명을 대상으로 기질 특성에 따른 사람중심 분석방법을 실시한 결과 ‘회피-비활동형’, ‘안정-조절형’, ‘불안정-억제형’의 세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조미림(2021)은 110명의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른 사람 중심 분석방법을 파악한 결과 ‘가슴형’, ‘머리형’, ‘장형’으로 세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지영과 정미라(2019)는 어머니의 성격의 한 측면인 기질을 높은 부정적 정서형 집단과 낮은 부정적 정서성을 특징지어 군집으로 나누었다. 하지만 사람 중심 방법으로 아버지의 성격유형이 양육 관련 변인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버지의 성격유형을 축으로 하여 군집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지 파악해보고, 군집유형에 따라 각 변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Big5 성격의 하위요인을 기준으로 사람 중심 분석방법을 적용해 아버지의

성격유형별 양육참여 및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성격유형으로 구분된 아버지 집단들이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면 아버지의 성격유형별 특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어떤 성격유형의 아버지들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지를 파악하여 아버지의 성격유형 별로 양육에 대한 교육 및 개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Big5 성격유형에 따른 군집유형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아버지의 성격유형 군집유형에 따른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3세부터 5세 자녀를 둔 아버지 302명을 대상으로 google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모두 302명으로, 조사 표집 방법은 구글 설문지를 통한 임의 표집이며 온라인 설문지의 특성상 선행된 문항을 답변하지 않으면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지 않으며 모든 문항을 확인한 후에 제출되게 되어 있으므로 누락된 경우가 없어 총 302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의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 특성 (N=302)

	변수	N(%)
연령	20~29세 이하	2(.7)
	30~39세 이하	143(47.4)
	40~49세 이하	147(48.7)
	50세 이상	10(3.3)
자녀수	1명	114(37.7%)
	2명	168(55.6%)
	3명	20(6.6%)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9(6.3%)
	2~3년제 대학 졸업	29(9.6%)
	4년제 대학 졸업	198(65.6%)
	대학원 졸(수료 포함)	56(18.5%)
맞벌이유무	네	160(53.0%)
	아니오	142(47.0%)

표 1. 계속

	변수	N(%)
맞벌이유형	파트타임	32(10.6%)
	전일제	128(42.4%)
	결측치	142(47.0%)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하	26(8.6%)
	301~400만원 이하	50(16.6%)
	401~500만원 이하	57(18.9%)
	501~600만원 이하	61(20.2%)
	601~700만원 이하	39(12.9%)
	701만원 이상 의사소통	69(22.8%)

2. 연구도구

1) Big5 성격유형

아버지의 Big5 성격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성격 5요인 척도를 사용하여 아버지의 성격을 측정하였다. 성격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검사도구로 Goldberg(1992)가 개발한 5요인 성격유형을 척도인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을 유태용 등(2004)이 번안한 문항을 이용하여 사용하였다. IPIP는 외향성, 신경증, 경험에 대한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 등 다섯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며 요인당 10개씩, 총 50개의 문항으로 되어있다. 문항의 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단계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각 요인당 총점 범위는 10~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Big5 성격유형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외향성 .958, 신경증 성향 .751, 경험에 대한 개방성 .797, 우호성 .818, 성실성 .825, 전체 .937로 나타났다.

2)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 척도는 홍성례와 유영주(1997)가 남편의 가족역할 수행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한 HFRPS(Husband's Family RolePerformance scale)를 한국아동패널에서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아버지의 양육참여(1차-5차)척도는 초기 배우자 역할 6문항, 부모역할 6문항, 친족역할 5문항, 가사분담자 역할5문항, 가계 경제관리 역할 5문항, 부양자역할 3문항, 대외적 역할 3문항, 전체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변인인 부모 역할 6문항 중 영유아기 아동에게서 관찰이 어려운 “자녀들의 공부나 숙제를 도와준다.”와 “자녀의 생일이나 입학, 졸업식 날을 잊지 않고 참가한다.”를 제외한 “나는 아이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 준다.”, “나는 아이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나는 아이에게 음식 또는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나는 아이와 함께 자주 놀아주거나 이야기 상대가 되어준다.” 4문항을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였으

며, 해석방법은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양육참여 4문항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726으로 나타났다.

3)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 Abidin, 1990)의 척도를 발췌하여 한국형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아버지가 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아버지가 인지하는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내용의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뜻한다. 문항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897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아버지의 성격유형을 유형화하기 위해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 점수를 Z점수로 변화하고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군집분석을 통하여 유형화된 아버지의 성격특성 집단에 따라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가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최종학력, 맞벌이유무, 월평균소득, 자녀여부를 통제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버지의 성격유형에 대한 군집

아버지의 성격유형을 유형화하기 위해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 성격유형의 점수를 표준점수(Z) 점수로 변환 후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네 집단으로 유형화 하였을 때 집단 간 독립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 결과 각 군집의 신경증($F_{(3,52)} = 106.17, p < .001$), 외향성($F_{(3,48)} = 91.38, p < .001$), 개방성($F_{(3,45)} = 79.57, p < .001$), 우호성($F_{(3,48)} = 92.94, p < .001$), 성실성($F_{(3,48)} = 89.796, p < .001$)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집1은 신경증이 낮고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성실,우호,개방형(65명)’으로 명명하였다. 군집2는 신경증이 높고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신경증형(84명)’으로 명명하였다. 군집3은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이 낮았고 성실성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성실형(89명)’으로 명명하였다. 군집4는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보다 성실성이 낮기 때문에 ‘낮은 성실성(64명)’으로 명명하였다.

표 2. 아버지의 성격유형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변수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F
신경증	-0.54	0.61	-0.80	0.86	$F_{(3,298)} = 106.172^{***}$
외향성	1.08	-0.85	-0.18	0.26	$F_{(3,298)} = 91.379^{***}$
개방성	1.14	-0.71	-0.27	0.15	$F_{(3,298)} = 79.575^{***}$
우호성	1.12	-0.85	-0.13	0.17	$F_{(3,298)} = 92.945^{***}$
성실성	0.98	-0.94	0.24	-0.09	$F_{(3,298)} = 89.796^{***}$
N(%)	65(21.5%)	84(27.8%)	89(29.4%)	64(21.1%)	

*** $p < .001$

2. 아버지의 성격유형에 따른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성격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최종학력, 맞벌이유무, 월 평균소득, 자녀여부)을 통제하고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성격유형 군집 유형의 주효과는 양육참여($F = 16.880, p < .001$)와, 양육스트레스($F = 16.880, p < .001$)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표 3. 아버지 성격유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

종속변수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양육참여	최종학력	.035	1	.035	.117	.733
	맞벌이유무	.479	1	.479	1.607	.206
	월평균소득	.003	1	.003	.012	.914
	자녀여부	.120	1	.120	.402	.527
	아버지 성격유형	15.085	3	5.028	16.880***	.000
	오차	87.576	294	.298		
	합계	103.979	301			
양육스트레스	최종학력	.531	1	.531	1.324	.251
	맞벌이유무	1.235	1	1.235	3.084	.080
	월평균소득	.408	1	.408	1.020	.313
	자녀여부	.723	1	.723	1.805	.180
	아버지 성격유형	34.901	3	11.634	29.040***	.000
	오차	117.782	294	.401		
	합계	161.365	301			

*** $p < .001$.

아버지의 성격 유형에 따라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Bonferroni 사후 검증 결과 <표 4>, 양육참여는 성실우호개방형 집단이 신경증형, 낮은성실형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실형, 낮은 성실형 집단은 신경증형 집단보다 양육참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 사후검증 결과 신경증형 집단은 성실우호개방형, 성실형, 낮은 성실형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양육스트레스가 나타났고, 낮은 성실형 집단은 성실우호개방형, 성실형 집단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아버지 성격유형에 따른 양육참여 및 양육스트레스 차이 사후검증

종속변수	아버지의 성격유형	N	M(SE)	Bonferroni
양육참여	A:성실우호개방형	65	4.27(.062)	A>B,D
	B:신경증형	84	3.67(.064)	
	C:성실형	89	4.14(.051)	C,D>B
	D:낮은 성실형	64	3.93(.075)	
양육스트레스	A:성실우호개방형	65	2.12(.076)	B>A,C,D
	B:신경증형	84	3.1(.066)	
	C:성실형	89	2.36(.069)	D>A,C
	D:낮은 성실형	64	2.64(.084)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3세부터 5세 자녀를 둔 302명의 아버지를 Big 5 성격유형에 따라 4개의 군집으로 유형화한 후, 성격유형에 따라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변량 분석을 통하여 아버지의 최종학력, 맞벌이유무, 월 평균소득, 자녀여부를 통제하고, 군집 유형에 따른 양육참여,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Big5 성격유형에 따라 4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으며 군집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이 낮고 성실성이 제일 높은 ‘성실형’ 집단이 89명(29.4%)으로 제일 많았다.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이 낮고 신경증이 높은 ‘신경증형’ 집단은 84명(27.8%),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이 평균 보다 높고 신경증이 낮은 ‘성실,우호,개방형’집단은 65명(21.5%), 가장 낮은 성실성을 나타내는 ‘낮은 성실형 집단’은 64명(21.1%)으로 제일 적은 군집으로 서로 구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격유형이 유사한 집단끼리 구분될 때 각 집단의 성격유형을 보다 상세하고 알아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성격유형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취약한 집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조기중재가 가능한 사람중심 접근법이 필요하다. 즉, 성격의 한 측면인 기질을 집단으로 특징지어 군집으로 나누었고, 여기에서 집단의 특성과 장단점을 확인하여 필요한 중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지영과 정미라(2019)의 연구와 김민정 등(2018)의 연구 결과 시사점에서 맥락이 상통한다. 이는 아버지의 성격유형을 접근함에 있어서 변인 중심적 접근보다 사람중심 접근

근법(Meyer et al., 2013)을 시도하여 성격유형에 따라 다른 성격을 갖는 개개인으로 구성된 하위 그룹을 확인하여 취약한 그룹에 대한 조기에 정확한 중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효과적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성격유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Big5 성격요인을 바탕으로 4개의 집단으로 여러 하위 유형이 서로 어떻게 어울려 있는가를 살펴보는 사람중심 분석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암시한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에 아버지의 성격을 유형화 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유사한 프로파일을 가진 아버지의 성격을 분류해 살펴본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아버지의 성격유형에 따라 양육참여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성실,우호,개방형’ 집단이 ‘신경증형’, ‘낮은성실형’집단에 비해서 높은 양육참여를 보였다. 이는 ‘성실성, 우호성, 개방성’성향이 높은 아버지일수록 자녀의 삶을 자기 삶 중 일부로 인식하여 자녀 미래에 대한 기대심과 책임감으로 인해 자녀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양육참여를 통해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성실성, 우호성, 개방성’ 집단의 아버지들은 높은 수준의 교양을 갖추기를 선호하며 열린 시각으로 양육참여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정신을 가질수록 자녀 양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양육을 행한다는 연구결과(김기현, 2000)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성실,우호,개방형’집단의 아버지들은 다정하고 긍정적인 양육참여는 자신의 개인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Nugent, 1991), 더욱 적극적인 양육참여로 이끄는 순환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성실형’집단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양육을 하기 위해 체계적인 목표를 계획하여 친밀하게 자녀와 대화를 자주 시도하는 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Stroud et al., 2010). 이에 따라 양육참여에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실형’집단의 아버지는 충동성이 낮으며 사회성, 책임성, 안정성 등이 높아 양육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한지현과 이진숙(2015)의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즉,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원만한 가족관계 형성을 이룸으로써 자녀와의 관계 또한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신중하며 완고하고 규율적인 성격유형 집단이 적극적인 양육참여 기반이 됨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낮은 성실형’ 집단의 경우 낮은 양육참여를 보였는데, 이는 성실성이 낮을수록 자녀를 방임적인 양육을 한다고 보고한 한지현과 이진숙(2015)의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따라서 성실하지 않은 아버지일수록 의존적이고 계획적이지 않고 목표 의식과 책임의식이 부족하여 양육참여에도 관심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실성이 낮을수록 산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충동적이며 섬세하게 일을 해결하지 않고,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며 의지가 약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Costa & McCrae, 1992), 이는 양육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성실성이 낮은 유형의 아버지들은 먼저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성이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는 아버지 교육이 선행 되어야 한다. 아버지 교육을 통해 의식이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생기고, 양육참여에도 성실하게 참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신경증형’집단의 경우 제일 낮은 양육참여를 보였는데, 이는 아버지가 부

정적인 성향이 있을 경우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화나 분노를 폭발적으로 표출하기 때문에(Ruiz et al., 2001), 양육참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감정의 기복이 심할 경우, 자녀 양육참여 문제를 양산함으로써, 자녀와 아버지 관계의 어려움을 만든다. 이러한 어려움은 결과적으로 양육참여에 대한 거리감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육참여에 대한 문제는 배우자와의 갈등을 야기한다(최효식 등, 2013). 이는 배우자와 의사소통을 하여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배우자와 서로 보완하면서 풀어가야 되는데 부정적인 성격의 아버지는 배우자와의 잦은 싸움과 의사소통이 줄어들어 스스로 혼자만 하는 육아를 해야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녀의 양육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아버지는 양육참여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보고한 임애련(2015)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신경증 특성이 높은 아버지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낮고 타인과의 유대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에 부정적이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자주 거부할 하므로 자연스럽게 양육참여와 거리가 멀어진다고 보고한 전현진과 김영희(2013)의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성향이 높은 아버지는 배우자,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부재 때문에 자녀에게 관심을 덜 기울이고 덜 반응적이어서 양육참여와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양육 참여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버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배우자, 자녀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아버지의 성격유형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신경증형’ 집단은 ‘성실,우호,개방형’, ‘성실형’, ‘낮은성실형’ 집단에 비해서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보였고, ‘낮은 성실형’ 집단은 ‘성실,우호,개방형’, ‘성실형’ 집단에 비해서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난 ‘신경증형’집단의 경우 아버지는 신경증 성향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에 비해 쉽게 노출이 되어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하였는데, 이처럼 신경적 성향이 높은 아버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아버지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되며(Langford & Glendon, 2002), 익숙지 않은 양육상황 때문에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의 부정적인 성격유형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가중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권다영, 강승희, 2021; 최윤희, 김영희, 2019)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신경증적 성격유형이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는 연구결과(Davies & Cummings, 1994; Downey & Coyne, 1990)를 일부 지지해준다. 따라서 부정적인 성격유형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일수록 쉽게 흥분하여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접함으로써 매우 비판적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간의 성격은 타인과 환경 등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성격을 인지하고, 이러한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지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낮은 성실형’집단의 아버지 경우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나타냈는데, 이는 성실성이 낮을수록 유연하지 못한 사고, 비수용적 태도, 부정적인 언어 사용으로 인하여(한지현, 이진숙, 2015), 자녀와의 관계에서 비사교적이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성실성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보고한 최윤희와 김영희(2019)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다. 따라서 성실성이 낮은 아버지일수록 낮은 절제력 때문에 자녀와의 잦은 마찰로 인하여 양육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낮은 성실형의 아버지들이 양육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재 방안이 요구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양육스트레스를 보여준 ‘성실,우호,개방형’, ‘성실형’의 아버지 집단은 규칙적이며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고 대인관계 능력을 이용하여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양육참여를 하여 배우자와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양육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보인다(Belsky & Isabella 1985; Prinzie et al., 2005). 또한 건강한 정신과 사고로 인해 배우자와의 의사소통도 원활하고 양육에 대한 역할 한계를 느끼지 못하여 자녀 양육에 관해 근심이 없어 명랑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아버지일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연구결과(허영림, 윤혜진, 2002; 김선희, 박정윤, 2012)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따라서 긍정적인 아버지는 성실하고 계획적이며 사람들과 잘 사귀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며 유연한 사고로 낮은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여 자녀 양육을 행동함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격유형은 아버지는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양육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배우자와 자녀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불러일으켜 양육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최근 부모의 성격과 양육심리 변인과 관련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에 비해 연구가 부족한 아버지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더 정교하게 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성격 유형화 및 유형별 개입은 특정 성격유형에 속한 개인에게 필요한 양육 관련 개입 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 접근이 필요한 개인을 선별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덧붙여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더 정교하게 하고 성격유형에 맞는 양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바탕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Big5 성격유형에 따라서 네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각 성격유형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였고, 각 군집에 따른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입증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성격유형에 따른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외 양육 관련 심리적 다양한 변인들을 좀 더 면밀히 탐색하여 아버지의 육아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 변인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아버지의 성격유형,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모두 아버지의 자기 보고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아버지의 성격유형과 관련하여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질적 인터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셋째, 본 연구의 표집 대상은 특정 지역의 유아와 그 아버지를 대상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충분한 연구 대상 표집을 하여 아버지 집단을 대표하는 연구가 되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고선옥, 이영환 (2006). 아버지의 창의적 성격특성, 양육신념, 유아의 창의성간의 인과관계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47, 1-19.
- 권다영, 강승희 (2021).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사회적지지 의 병렬다중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6), 895-908.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6.895>
- 김경은 (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16(7), 4566-4575. <https://doi.org/10.5762/KAIS.2015.16.7.4566>
- 김귀옥, 김영희 (2015). 아버지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9(2), 45-57.
- 김기현 (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변인탐색.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낙홍 (2011). “바람직한 아버지의 역할과 역할수행의 어려움, 사회적 차원에 대한 고찰”, **미래교육학회지**, 18(2), 79-98
- 김미숙, 김바다 (2016).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8(4), 21-38.
- 김민정, 변혜원, 이미나 (2018). 교사 기질 군집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 **유아교육연구**, 38(2), 157-172. <https://doi.org/10.18023/kjece.2018.38.2.006>
- 김선희, 박정윤 (2012). 취업모의 성격특성과 자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0(8), 41-52. <https://doi.org/10.6115/khea.2012.50.8.041>
- 김용익, 김낙홍 (2015). ‘아빠학교’의 아버지들이 양육참여를 통해 겪은 삶의 경험 탐색. **한국육아지원학회**, 10(2), 191-215. <https://doi.org/10.16978/ecec.2015.10.2.009>
- 김은희, 정희정 (2019).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원가족 애착경험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9(4), 63-78. <https://doi.org/10.21213/kjcec.2019.19.4.63>
- 도경민, 이희영 (2019).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과학연구**, 20(4), 219-242. <https://doi.org/10.15818/ihss.2019.20.4.219>
- 박영애, 최영희 (2002).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3(2), 71-88.
- 백윤희, 정경희 (2017). 영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성격·양육태도에 따른 영유아 언어발달 차이. **유아특수교육연구**, 17(3), 173-194. <https://doi.org/10.21214/kecse.2017.17.3.173>
- 백진희, 신혜원 (2019). 유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양육참여정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9(4), 189-201. <https://doi.org/10.21213/kjcec.2019.19.4.189>
- 성영실, 김경철 (2017). 유아기 자녀를 둔 주말부부 아버지의 자녀 양육 경험 탐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7(23), 49-70.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23.49>

- 손영빈, 윤기영 (2011). 아버지의 역할지각, 양육참여도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105-126.
- 심선영, 김재민, 유준안, 배경열, 김성완, 양수진, 신일선, 윤진상 (2010). 노인에서 한국판 성격 5요인 척도의 표준화 및 타당도. **생물정신의학**, 17(1), 15-25.
- 심예은, 최은실, 정승철 (2021). 성격 5요인검사 단축형(BFI-SF) 타당화 연구. **인지발달장애학회지**, 12(3), 105-134. <https://doi.org/10.21197/JCEI.12.3.6>
- 양완희, 신나리 (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유태용, 이기범, Ashton, M. C. (2004).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의 구성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61-75.
- 윤서연 (2016).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기반한 아버지 양육행동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 발표대회 자료집**.
- 윤천성, 김미선 (2008). 에니어그램에 근거한 어머니의 성격유형과 양육태도의 관계. **에니어그램 연구**, 5(1), 9-35.
- 이배, 김경숙 (2013).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놀이성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아동교육**, 22(3), 191-206.
- 이원석 (2011). 호텔베이커리 종사자의 성격유형(Big5)이 기업의 주관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인숙, 전정희 (2016). 북한이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22(3), 182-189.
- 이지영, 정미라 (2019). 어머니 기질 군집에 따른 양육효능감 차이. **유아교육학논집**, 23(2), 333-350. <https://doi.org/10.32349/ECERR.2019.4.23.2.333>
- 임애련 (2015).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직업만족도 및 양육참여: 아버지 기질의 조절효과.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성희 (2010). 부모의 창의적 성격 특성, 가족기능성, 온정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창의적 사고 및 창의적 행동 특성 간의 구조적 관계.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효은, 김춘경 (2018). 영아기 아버지 양육참여,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영아 심리사회발달과 유아기 또래상호작용 간의 종단적 관계 분석. **한국보육학회지**, 18(1), 77-102. <https://doi.org/10.21213/kjcec.2018.18.1.77>
- 장휘숙 (2010). 청년기 발달과업 성취가 청소년의 5요인 성격특성과 자기존중감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1-17.
- 전현진, 김영희 (2013).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 연구논총**, 17(2), 31-44.
- 제희선, 이강훈 (2018).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의 종단 매개효과. **교육혁신연구**, 28(2), 399-421. <https://doi.org/10.21024/pnuedi.28.2.201806.399>
- 조가연, 김호정 (2021). 18~35개월 영유아와 어머니 기질 군집에 따른 조화적합성과 양육 스트레스

- 와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 **발달지원연구**, 10(3), 35-53. <https://doi.org/10.22839/adp.2021.10.3.35>
- 조미림 (2021). 장애아동 어머니의 성격유형에 따른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5(8), 403-409. <https://doi.org/10.21184/jkeia.2021.12.15.8.403>
- 조해연, 유준호 (2021).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모역할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9), 609-622.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9.609>
- 최윤희, 김영희 (2019).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양육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가 어머니와 영유아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12(2), 23-49. <https://doi.org/10.47801/KJIMH.12.2.2>
- 최효식, 연은모, 권수진, 홍윤정 (2013).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분석. **육아정책연구**, 7(2), 21-45.
- 한지현, 이진숙 (2015). 어머니의 5요인 성격특성과 놀이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36(5), 173-188. <https://doi.org/10.5723/KJCS.2015.36.5.173>
- 허영림, 윤혜진 (200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만 4세-6세 아동의 특성과 어머니의 특성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6(4), 85-101.
- 홍성례, 유영주(1997).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 30대 남편을 중심으로 -. **생활과학논집**, 1(1), 63-76.
-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1904_1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2104_12
- Allport, G. W. (1937).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Holt, Rinehart and Winston.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https://doi.org/10.2307/1129836>
- Belsky, J., & Isabella, R. A. (1985).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change following the birth of a baby: A retrospective analysis. *Child Development*, 56(2), 342-349. <https://doi.org/10.2307/1129724>
- Belsky, J., & Jaffee, S. R. (2006). The multiple determinants of parenting. In D. Cicchetti & D. J. Cohen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Risk, disorder, and adaptation* (pp. 38-85). John Wiley & Sons, Inc.. <https://doi.org/10.1002/9780470939406.ch2>
- Belsky, J., Youngblade, I. M., Kovine, M., & Volling, D. I. (1991). Patterns of marital change and parent-child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2), 487-498. <https://doi.org/10.2307/352914>
- Chiel, Z. A. (2018). *Parental attributions of control and self-efficacy: Observed parenting behaviors in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Publication No. 10747288)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https://doi.org/10.7916/D8CR7B2Q>
- Costa P. T., Jr., & McCrae, R. R. (1992)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and NEO five-factor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387-411. <https://doi.org/10.1037/0033-2909.116.3.387>
- Downey, G., & Coyne, J. C. (1990). Social factors and psychopathology: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2(1), 401-425. <https://doi.org/10.1146/annurev.ps.42.020191.002153>
- Dudson, F. (1975). *How to father*. Penguin Books.
- Fagan, J., & Palm, G. (2004). *Fathers and early childhood programs*. Delmar Learning.
- Freud, S. (1933). *New 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McGraw Hill.
- Gilbert, L. A., Hanson, G. R., & Davis, B. (1982). Perceptions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Difference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Family Relations*, 31(2), 261-269. <https://doi.org/10.2307/584405>
- Goldberg, L. R. (1992). The development of markers for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Psychological Assessment*, 4(1), 26-42. <https://doi.org/10.1037/1040-3590.4.1.26>
- Goldberg, L. R. (1992). The development of markers for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Psychological Assessment*, 4(1), 26-42. <https://doi.org/10.1037/1040-3590.4.1.26>
- Jersild, A. T. (1962). *Child psychology* (5th ed.). Prentice Hall.
- Kennedy, M., Betts, L., Dunn, T., Sonuga-Barke, E., & Underwood, J. (2015). Applying Pleck's model of paternal involvement to the study of preschool attachment quality: A proof of concept stud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5(4), 601-613. <https://doi.org/10.1080/03004430.2014.944907>
- Lamb, M. E., & Tamis-LeMonda, C. S. (2004). The role of the father: An introduction. In M.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4th ed., pp. 1-31). John Wiley & Sons.
- Lamb, M. E., Pleck, J. H., Charnov, E. L., & Levine, J. A. (1987). A biosocial perspective in paternal behavior and involvement. In J. B. Lancaster, J. Altman, A. S. Rossi, & L. R. Sherrod (Eds.), *Parenting across the lifespan: Biosocial dimensions*. (pp. 111-142. Routledge.
- Langford, C., & Glendon, A. I. (2002). Effects of neuroticism, extraversion, circadian type, and age on reported driver stress. *Work and Stress*, 16(4), 316-334. <https://doi.org/10.1080/0267837021000059019>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 Levy-Shiff, R., & Israelashvili, R. (1988). Antecedents of fathering: Some further explo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3), 434-440. <https://doi.org/10.1037/0012-1649.24.3.434>
- M. E. Lamb (Ed.). (2002).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pp. 1-31) John Wiley & Sons.
- McAdams, D. P. (1992). The five-factor model in personality: A critical appraisal. *Journal of Personality*, 60(2), 329-361. <https://doi.org/10.1111/j.1467-6494.1992.tb00976.x>
- McGillicuddy-Delisi, A. V. (198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cognitive level. In I. E. Sigel(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7-24).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eyer, J. P., Stanley, L. J., & Vandenberg, R. J. (2013). A person-centered approach to the study of commit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23(2), 190-202. <https://doi.org/10.1016/>

j.hrmr.2012.07.007

- Nielsen, N. R., Kristensen, T. S., Schnohr, P., & Grønbaek, M. (2008). Perceived stress and cause-specific mortality among men and women: results from a prospective cohort study.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68(5), 481-491. <https://doi.org/10.1093/aje/kwn157>,
- Nugent, R. P., Krohn, M. A., & Hillier, S. L. (1991). Reliability of diagnosing bacterial vaginosis is improved by a standardized method of gram stain interpretation. *Journal of clinical microbiology*, 29(2), 297-301. <https://doi.org/10.1128/jcm.29.2.297-301.1991>.
- Prinzle, P., Ongheana, P., Helinckx, W., Grietens, H., Ghesquiere, P., & Colpin, H. (2005).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personality and externalizing behaviour: The role of negative parenting. *Psychologica Belgica*, 45(2), 123-145. <https://doi.org/10.5334/pb-45-2-123>
- Ruiz, J. M., Smith, T. W., & Rhodewalt, F. (2001). Distinguishing narcissism and hostilit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interpersonal circumplex and five-factor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6(3), 537-555.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7603_12
- Ryan, R., Martin, A., & Brooks-Gunn, J. (2006). Is one good parent good enough? Patterns of mother and father parenting and child cognitive outcomes at 24 and 36 month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6(2), 211-228. <https://doi.org/10.1080/15295192.2006.9681306>
- Stroud, C. B., Durbin, C. E., Saigal, S. D., & Knobloch-Fedders L. M. (2010). Normal and abnormal personality traits are associated with marital satisfaction for both men and women: A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nalysi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4), 466-477. <https://doi.org/10.1016/j.jrp.2010.05.011>

논문투고: 22.08.05.

수정원고접수: 22.11.22.

최종게재결정: 22.11.24.